Healing Ⅱ.
믿음의 본질은 아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1. 하나님의 형상

(1)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다(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증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핵심이다. 그래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안에서 나의 존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거듭남'은 내가 살고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영적인 사고방식,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영혼육이 다시 정렬된다. 육적인 생각, 땅이 만들어준 세계관을 벗어나서 생각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한다. 그래서 삶이 다른 것이다. 이런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히브리서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2)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영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복음 3:8]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요한복음에 영적인 사람, 즉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고 설명한다. 바람은 무엇인가? 바람의 속성은 '불고 싶은 대로'(임의대로) 이다. 바람이 사물에 부딪히며 소리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바람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한 마디로 땅의 세계관과 가치에 묶여있지 않은 사람이다. 육은 '한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영은 '한계'가 없다. 영원하다. 육은 '틀'을 말하지만 영은 '틀'이 없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의 참 뜻이다.

(3) 자신의 존재를 믿지 못함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렸다.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영 또한 단절과 분리를 경험했다. 이런 죄악된 인간의 형상은 그 후부터 사망의 결과인 '육의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대표가 가인이다. 동생을 죽이겠다는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육신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겠는가? 바로 영이 단절된, 육이 되어버린 인간의 자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은 끝임없이 '검증'하고, '증명'하고, '의심'하고, '비교'한다. 왜냐하면 존재 그 자체 (스스로 계신 분)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대표적인 인간의 습성이 '바벨탑'에 나타난다. 바벨탑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벨과 같은 힘을 모으는 것이다. 재력, 권력, 명예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증명하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습성이 '고아'의 습성이다. 그 태생적 '공허함'이 인간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 '자신'에 대한 불신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

(4) 틀을 만드는 인간

그래서 인간은 '틀'을 만든다. 바벨탑과 같은 틀을 만들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자신이 만든 틀을 벗어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확신하는 '틀'에 목숨을 건다. '틀'을 내려놓는 것은 결국 자신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 온 경험의 틀, 신념의 틀을 '의지'라는 밧줄로 동여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다. 왜 바울이 사울시절 예수님을 대적하며 기독교를 말살하려 했겠는가? 예수님에 대한 인정은 자신이 속한 모든 땅의 삶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믿고 지키고 있던 율법이라는 틀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불편했겠는가? 율법에 의해 움직였던 자신의 틀을 깨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것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바울이 만든 율법이라는 틀은 무엇인가? 결국 '정체성 없는 자신'을 말한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행위로 만들어 낸 '틀'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그런 종교적 '틀'은 하늘의 어떠한 신령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 모세의 기적을 알고 있었고, 여리고의 기적, 에스겔, 엘리야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어떤 놀라운 일도 나타나지 않았다.

(5) 고린도전서 2장 - 신령한 자

'고아'와 같은 옛 자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이다. 죄의 속성이 본성 가운데 물들어 있는 '옛 자아'가 완전히 죽는 일이다. 그리고 다시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길이다. 새창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담으로 인해 더러워진 세상이 무너지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살고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다. 거듭날 수 있었다. 깨어진 인간의 그릇된 형상의 모든 것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 하셨다. 즉, 이제 새로운 존재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될 때,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래의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신령한 자를 말하며 '십자가'를 선포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육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의 세계를 아는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11-15]
11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영적인 존재는, 이 땅의 육에 속한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다는 말이다.

(6) 확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지음받은 '형상'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한다. 그래서 '구원'보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 믿음은 바로 '확신'의 단계를 말한다.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틀'에 묶여있지 않다. 인간의 사고에 묶여있지 않고, 묶이지도 않는다.

2. 하나님을 믿는 확신

[요한계시록 4: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이 갇혀 있었던 밧모섬의 상황은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최악이며, 한계상황이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요한의 상황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하신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4:1절이다. 요한의 상황은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동굴과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 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다.

오히려 '위로 올라오라',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겠다' 라고 말씀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가? 이것은 "요한아 너는 인간이 묶을 수 있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다. 너는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보는 영적인 존재란다" 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임하는 순간이다.

치유와 회복은 십자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내 자신'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미 나는 온전한 존재임을 확신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의 생각, 마음은 벌써 다르다. 육신의 질병, 정신적 질병, 환경의 막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회복되고 치유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시작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오늘 요한계시록 4;1절의 음성을 마음으로 믿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회복된 존재임을 신념으로 믿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선포하자. 이미 치유는 일어났다. 할렐루야.